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 2022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 주민설문조사 결과보고

결재요지

□ 주민설문조사 투표 결과

- 기 간 : '21. 9. 29. ~ 10. 22.(26일간)
- 방 법 : 온라인 및 서면 설문조사
- 참 여 : 총 640명 (온라인 160명, 서면 480명)
- 내 용 : 예산편성방향 및 중점투자분야 등 19개 문항
- 결 과
 - 2022년도 가장 우선 투자분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를 선택
 - 2022년도 감축 투자분야로 문화·관광 분야를 선택

- 202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보고

-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
- ◆ 2022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반영코자 함

I 설문조사 투표 개요

- 조사기간 : 2021. 9. 29. ~ 2021. 10. 22. (26일간)
- 조사대상 : 홈페이지 접속 군민 및 읍면 표본 설문조사자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온라인 : 고창군 홈페이지 설문조사 게시판
 - 서 면 :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 조사항목 : 총 19개 문항
 - 설문조사 : 2022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중점투자분야 14개
의견수렴 1개, 인적사항 4개

< 10분야 >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도로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 응답현황 : 640명(온라인 160명, 서면 480명)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 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Ⅱ 설문조사 투표결과

① 응답자수 : 총 640명 (온라인 160명, 서면 480)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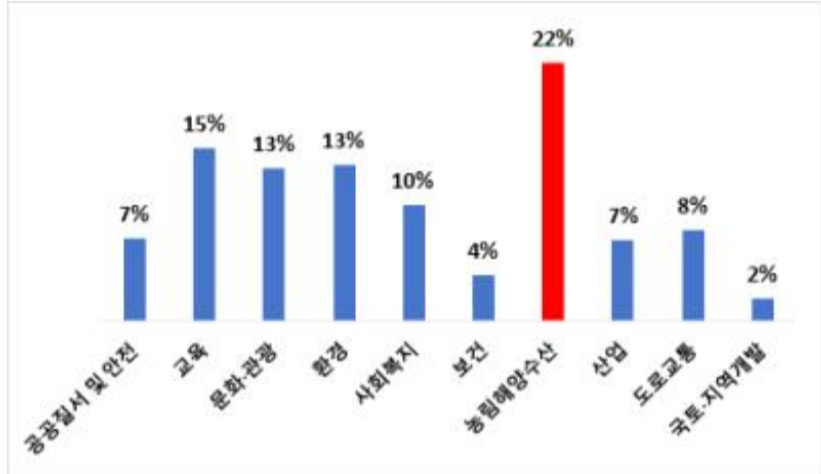
	구 분	인 원	비 율
성 별	남 성	343	53
	여 성	297	46
연 령	19세이하	2	0
	20대(20~29)	79	12
	30대(30~39)	147	23
	40대(40~49)	110	17
	50대(50~59)	163	25
	60대 이상	139	22
지 역	고창읍	215	33
	고수면	33	5
	아산면	39	6
	무장면	25	4
	공음면	25	4
	상하면	30	5
	해리면	39	6
	성송면	33	5
	대산면	35	6
	심원면	33	5
	흥덕면	31	5
	성내면	33	5
	신림면	36	6
	부안면	33	5
직 업	농림축산업	212	33
	회사원	82	13
	기술·전문직	23	4
	자영업	55	9
	가정주부	61	10
	사무직	104	16
	학생	8	1
	기타	95	15

②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1 우리군이 2022년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 (1개선택)

-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140명이 농림해양수산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교육분야가 94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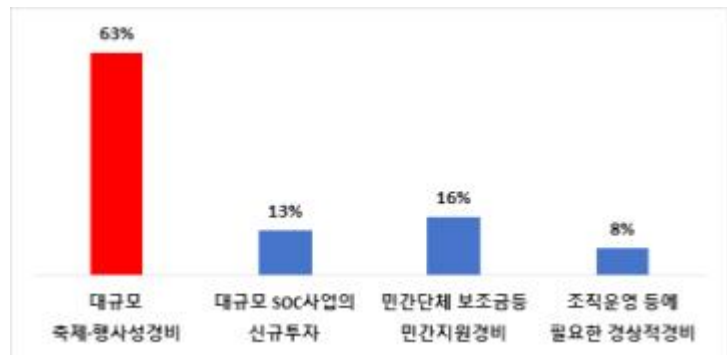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공공질서 및 안전	45
교육	94
문화·관광	83
환경	85
사회복지	63
보건	25
농림해양수산	140
산업	44
도로교통	49
국토·지역개발	12



2 군 재정여건의 악화로 긴축운용이 필요하다면, 선택 분야는 ? (1개선택)

- 우리 군이 재정여건 악화로 긴축운용이 필요하다면 선택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403명이 대규모 축제·행사경비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민간단체 보조금 등이 105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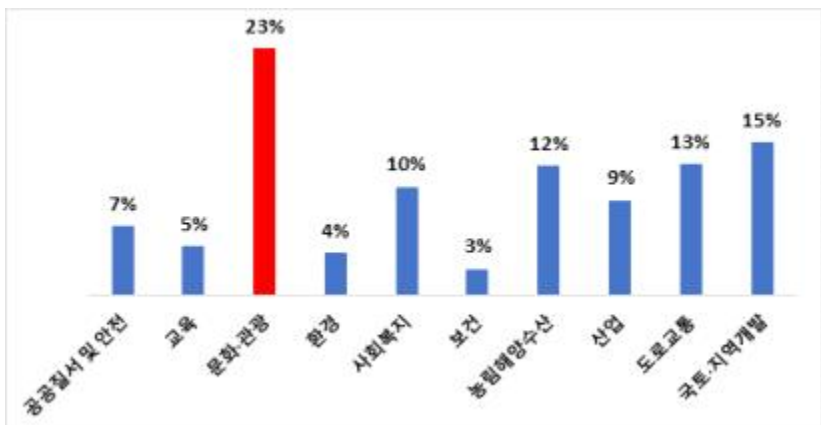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대규모 축제·행사성경비	403
대규모 SOC사업의 신규투자	82
민간단체 보조금등 민간지원경비	105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50



3 2022년도 예산편성 시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 (1개선택)

- 우리 군 2022년도 예산편성시 투자를 줄여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150명이 문화관광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국토·지역개발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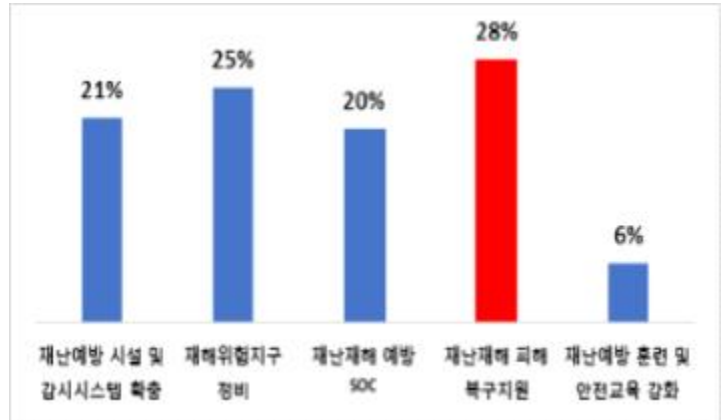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공공질서 및 안전	42
교육	32
문화·관광	150
환경	26
사회복지	66
보건	16
농림해양수산	79
산업	58
도로교통	80
국토·지역개발	93



4 공공질서·안전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 (1개선택)

- 공공질서·안전분야 중 우선적 투자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176명이 재난재해 피해 복구지원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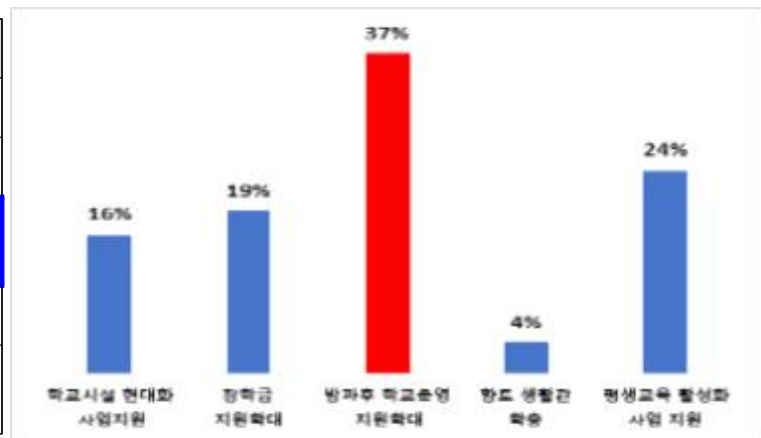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재난예방 시설 및 감시시스템 확충	137
재해위험지구 정비	157
재난재해 예방 SOC	130
재난재해 피해 복구지원	176
재난예방 훈련 및 안전교육 강화	40



5 교육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 (1개선택)

- 교육 분야 중 우선적 투자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239명이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확대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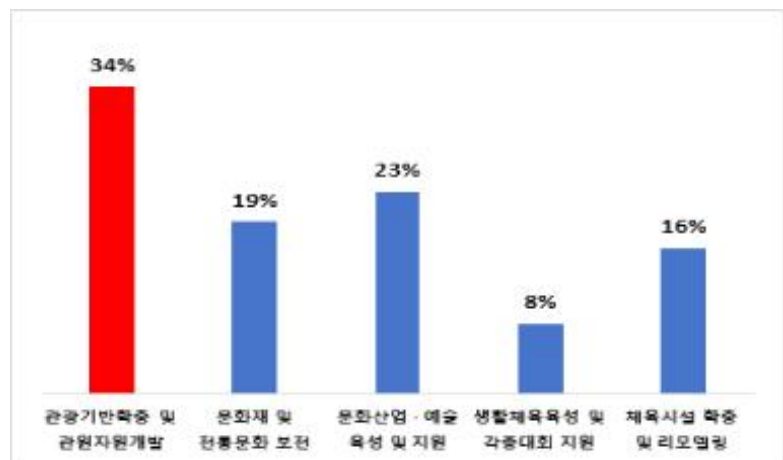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학교시설현대화사업지원	104
장학금 지원확대	122
방과후 학교운영지원확대	239
향토 생활관 확충	23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지원	152



6 문화 및 관광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 (1개선택)

- 문화 관광분야 중 우선적 투자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219명이 관광기반확충 등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문화산업·예술육성 및 지원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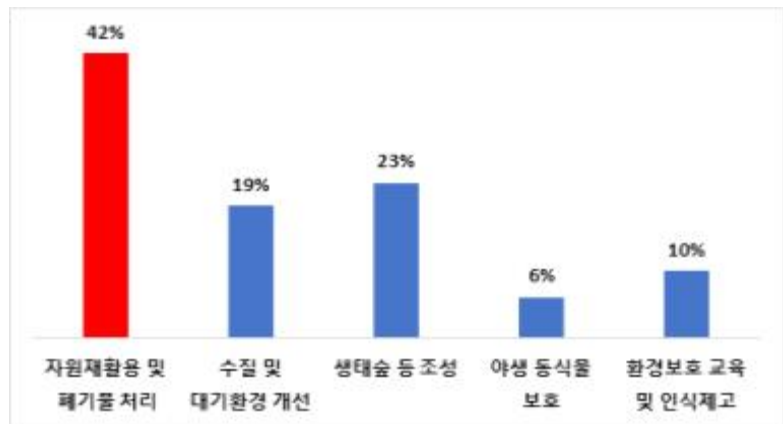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관광기반확충 및 관원자원개발	219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전	123
문화산업·예술 육성 및 지원	144
생활체육육성 및 각종대회지원	50
체육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104



7 환경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 (1개선택)

- 환경분야 중 우선적 투자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267명이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생태숲 등 조성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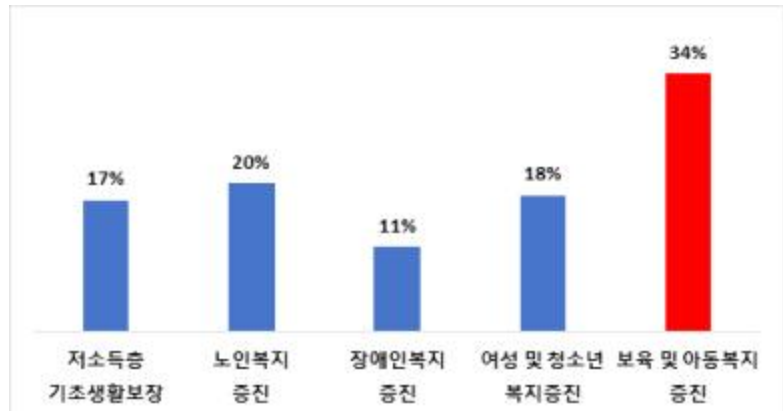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267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124
생태숲 및 녹색공간 조성	146
야생 동식물 보호	39
환경보호 교육 및 인식제고	64



8 사회복지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 (1개선택)

- 사회복지 분야 중 우선적 투자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218명이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노인복지 증진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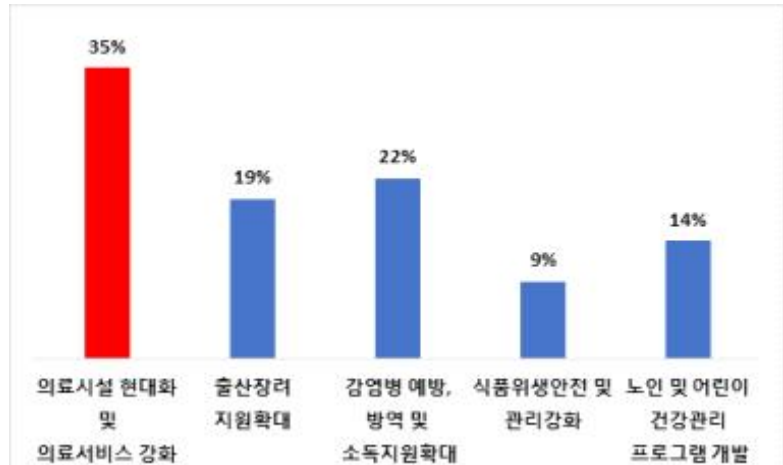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11
노인복지 증진	125
장애인복지 증진	71
여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115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	218



9 보건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 (1개선택)

- 보건분야 중 우선적 투자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225명이 의료시설 현대화 및 의료서비스강화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감염병예방 등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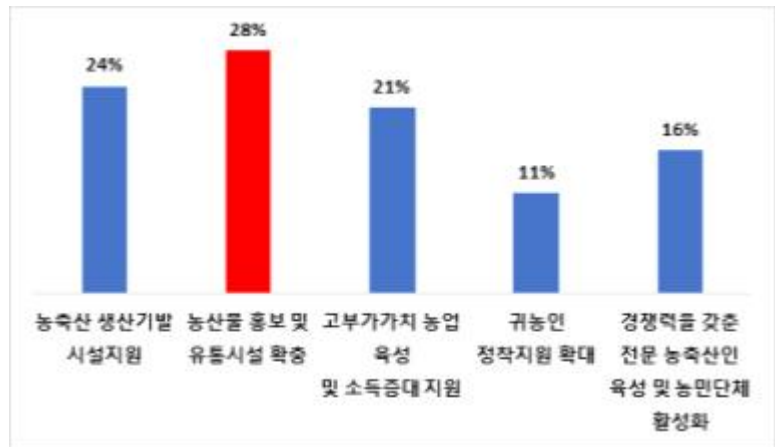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의료시설 현대화 및 의료서비스강화	225
출산장려 지원확대	124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소독지원확대	140
식품위생안전 및 관리강화	60
노인 및 어린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91



10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 (1개선택)

-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우선적 투자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177명이 농산물 홍보 및 유통시설 확충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농축산 생산기발시설 확충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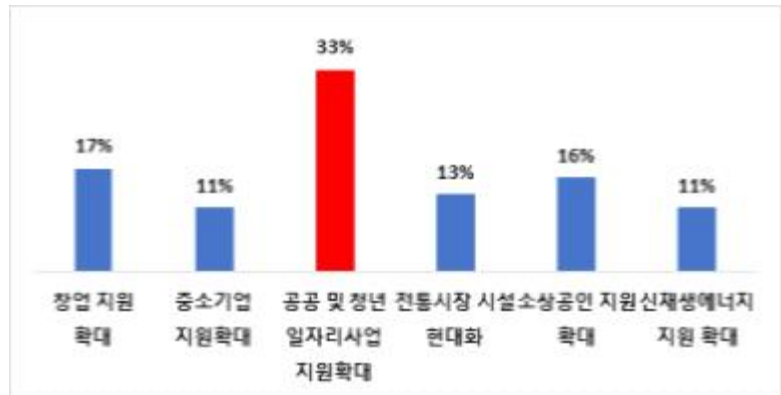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농축산 생산기발 시설지원	151
농산물 홍보 및 유통시설 확충	177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및 소득증대지원	135
귀농인 정착지원 확대	73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축산인 육성 및 농민단체활성화	104



11 산업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 (1개선택)

- 산업 분야 중 우선적 투자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214명이 공공 및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확대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창업지원 확대를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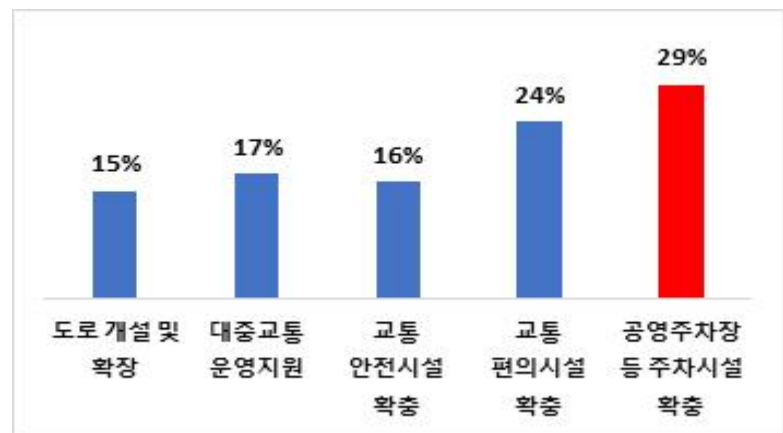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창업 지원 확대	109
중소기업 지원확대	68
공공 및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확대	214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81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0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68



12 도로교통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 (1개선택)

- 도로교통 분야 중 우선적 투자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185명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충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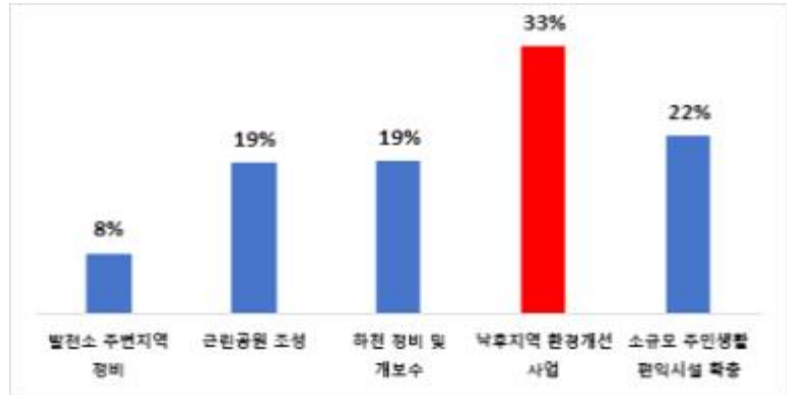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도로 개설 및 확장	93
대중교통 운영지원	108
교통 안전시설 확충	101
교통 편의시설 확충	153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충	185



13 국토·지역개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 (1개선택)

- 국토·지역개발 분야 중 우선적 투자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211명 낙후지역 환경개선 분야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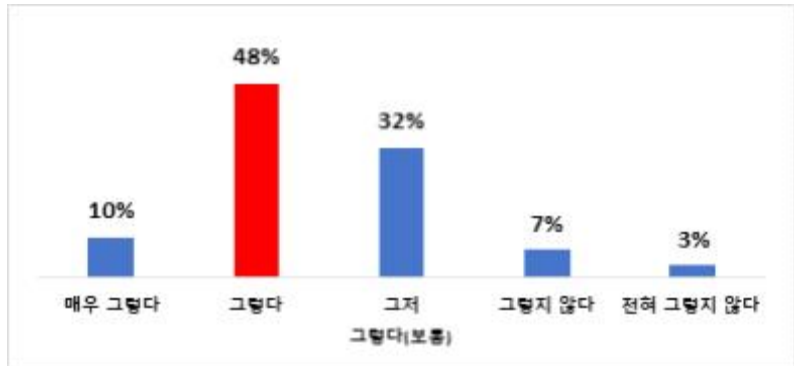
분야	인원(명)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48
근린공원 조성	119
하천 정비 및 개보수	121
낙후지역 환경개선 사업	211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	141



14 그 동안 고창군에서 편성해 온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투자 되었는가 ? (1개 선택)

- 고창군 편성예산이 적절하게 투자 되었는가 질문에 대해, 응답자 640명 중 306명 “그렇다”를 뽑았으며, 두 번째로 “그저 그렇다 (보통)”을 선택함

분야	인원(명)
매우 그렇다	64
그렇다	306
그저 그렇다(보통)	205
그렇지 않다	45
전혀 그렇지 않다	20



15 고창군 예산편성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제안이나 건의사항 의견제시

구분	연번	주요내용
경제 및 일자리 관련	1	일자리 창출 시 규제 없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2	지역경제살리기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실제적인 수익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관리체제에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일자리 창출이 제일 필요한 것 같다. 동우팜 같은 기업이 더 많이 유치되어서 고창사람이 아니어도 다른곳에서 인력이 들어온다면 고창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4	젊은 청년들이 고창을 떠나지 않게 군에서 일자리 상담소 시스템 운영을 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고창에 정착할 수 있게 홍보해주세요.
	5	중장년층 일자리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6	지역일자리 확충은 각 면단위로 위임하여 각 면지역에서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지자체 개입금지)
	7	공무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전문인력을 고용, 연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에 투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분	연번	주요내용
	8	공공일자리 사업중 버스 승강장 내외 주변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미줄쓰레기, 흙먼지, 주변잡초 제거등을 통해 이용주민은 쾌적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을 할 기회라고 봅니다.
	9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많은 선택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10	청년대출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11	취업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들을 곳이 너무 없습니다. (자격증취득) 타 지역에 비해서 교육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1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적극추진
	13	출향 경제 기업인에 대한 유대관계로 고향에 투자유치하도록 관심 있게 관리
환경 및 예산 절감	14	지역경제를 살리되 환경을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	각 마을에 종이박스 집하장 및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여 소각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16	토양검정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홍보 (고창군 토양 검정 비율 상황 파악 및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토양 검정 5부제, 최소 20% 달성을 통한 시스템에 의한 영농, 농민들의 시스템, 생산성 향상)
	17	선심성 사업이 너무 많으며, 특정인들의 혜택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이 민감한데 에너지 관련 투자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 등 선심성 사업은 줄이고 보편적으로 모두가 누릴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축제 등을 축소하고 몇 개만 운영하여 발전시키고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사업이 인맥을 우선시해서 선택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습니다.
	19	지역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보다는 학연과 인맥, 정치적 이익 관계 등의 이유로 자원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고창에 발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0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부실공사를 줄여 예산 절감하자
	21	예산을 민간에서 감사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2	각종 농기계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이 농민을 위해 쓰여지는게 아니고 판매업체를 위해 지원되고 있다. 예를들어 저온저장고 200만원 보조사업이 끝나면 업체들이 보조금 받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농기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혈세가 업체만 살찌게 한다. 보조사업이 있어야 상거래질서가 바로 선다 생각한다.
	23	대형공공기관 건물 에너지 절감 현장점검 시설 개보수
	24	불필요한 행사비용을 줄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기반 사업 (쓰레기 처리, 도로포장 등)을 우선으로 해주세요.
	25	행사는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활동에 투자 해주셨으면 합니다. (맞벌이는 돌보기 힘들어요)

구분	연번	주요내용
기타 건의 사항	26	민선 7기 농생명분야에 많은 공을 들였고 귀촌·귀농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고창군 피해로 보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7	문화관광 부분의 자원을 찾아 활성화 시키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을대교와 관련 고창의 노을해변을 활성화하여 노을을 상품화시키고 노을과 관련된 상업과 예쁜곳과 편안한곳 힐링이 가능한곳을 찾아 다니는 젊은층의 관광객 유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된 갯벌을 활용한 관광사업도 필요하겠네요
	28	군정발전 아이디어 등 발굴을 위한 기획단 운영, 읍면단위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규모 확대 및 자체역량 강화(인력 및 재정지원 포함)
	29	고창군 교통 인프라가 너무 복잡합니다. 기차역, 터미널 신규 조성 등 교통편 확충이 필요합니다.
	30	이장들 수당만 올려줄게 아니라, 부녀회장들 활발한 활동을 위해 교통비라도 보조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31	고창읍을 중심으로 면단위가 대부분이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발전은 골짜기로 들어가는지 확 트인 서고창ic 진입로 부근을 개발하여야 군민들의 생활 편의와 중앙로 차량통행도 원활할텐데 군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32	새롭게 지어지는 고창읍사무소, 아산면 체육관 등 관광서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고인돌박물관 야외주차장 등 유흥지에 전라북도 도청 주차장에 있는것처럼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고인돌박물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시원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생산되는 전력으로 박물관 등 운영전력으로 활용하여야 함
	33	귀촌을 하여 고창군에 거주중으로, 계획했던 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어 대출까지 실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없습니다. 이사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더 발굴 부탁드립니다.
	34	다양한 연령층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편중된(예:인문학강의) 이런 사업은 소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교육사업, 취미사업의 다양화 필요
	35	출산장려금 높이고, 하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혜택을 못 받는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정책 등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11,12월생은 예산이 소진되어 용품 및 현금 지원이 없어짐)
	36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37	군민을 위한 행정 신설, 공정정착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III 분야별 설문내용 분석

- 지원확대 : 농림해양수산(22%), 교육(15%), 환경(13%)
 - 고창군 산업구조 중 농림어업부분이 35.8%를 차지하는 만큼 관심이 많으며, 특히 농산물 홍보 및 유통시설 확충 의견이 많음
 - 맞벌이 자녀를 위한 초·중등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평생교육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생활인식 개선으로 쓰레기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지원축소 : 문화·관광(23%), 국토·지역개발(15%), 도로교통(13%)
 - 건축운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뺏으므로써, 이와 관련된 문화·관광분야 지원 축소를 많이 선택함
 - 국토 및 지역개발은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임
- 총 평
 - 농림해양수산, 교육, 환경 순으로 예산지원 확대 의견이 많았고,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지원축소 의견 도출
 -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기타의견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관련 지원요청이 많았음

IV 향후 추진계획

- 설문조사 결과 공개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게시판
- 예산편성 기초자료 및 주민참여예산 설명·토론회 참고자료로 활용
 - 설문결과 및 예산운영 제안사항은 분야별 투자방향 설정 등 예산 편성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및 적극반영